



문서번호	총무담당관실~
보존기간	영 구
보고일자	2017. 5.
공개여부	공 개

담당자	총무팀장	총 무 담당관	사무처장	의 장	결
최현희	이양빈	조한영	연가	윤석우	제
협 조					

- 제8회 동북아시아 - 의장포럼 참가 결과보고

◇ 포럼기간 : '17. 4. 17.(월) ~ 4. 19.(수) / 2박 3일
- 자체일정 : '17. 4. 19. ~ '17. 4. 20.(목)/2일
◇ 장 소 : 아키타현(아키타 캐슬호텔)
◇ 참 석 자
- 의 원 : 2명(윤석우의장, 김응규의원)
- 수행원 : 3명(조한영 총무담당관, 이은형, 전영수)
◇ 포럼주제 : 동북아시아지역의 문화·관광·경제교류 확대 방안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순서

I. 포럼개요	1
II. 총평	2
III. 주요일정	3
IV. 공식접견 내용	3
V. 각 지방의회 주제발표	4
VI. 주요성과	10
VII. 주요활동 사진	13

- 제8회 동북아시아 - 의장포럼 참가 결과보고

❖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관광·경제 등 교류확대를 위한 「제8회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일본 아키타현 주최)」 참석 결과를 보고 드림

I 포럼 개요

- 기 간 : 2017. 4. 17.(월) ~ 4. 19(수) / 2박 3일간
 - ※ 자체일정 : '17. 4. 19.(수) ~ '17. 4. 20.(목) 2일
 - 1일차 : 인천 ➡ 나고야 ➡ 아키타시 도착
 - 2일차 : 의장 접견, 포럼, 리셉션
 - 3일차 : 백제문화유적지 탐방(오사카)
 - 4일차 : 백제문화유적지 탐방(교토)
- 장 소 : 아키타현(아키타 캐슬호텔)
- 참가국 : 5개국 12단체 103명
 - 한국(충남도, 강원도), 중국(옌벤조선족자치주, 지린성)
 - 일본(아키타현, 니가타시, 야마가타현, 토야마현)
 - 몽골(투브주), 러시아(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 하바로프스크시)
- 포럼주제 : 동북아시아지역의 문화·관광·경제교류 확대 방안
- 우리도 방문단

직 위	소 속	성 명	역 할	비 고
충청남도의회 (2)	의 장	윤 석 우	단장(대표)	의원 2명 직원 3명
	의 원	김 응 규	동북아시아지역의 확대방안 모색	
총무담당관실 (3)	담당관	조 한 영	현지총괄	
	직 원	이 은 형	의전수행	
	직 원	전 영 수	영상촬영	

II 총 평

【전반적인 분위기】

- 일본은 세계적으로 친절과 청결, 질서정연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영접에서부터 주 행사, 주변 문화유적지 안내까지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며
- 식전행사는 간토우(竿燈) 등 아키타현 고유민속예능 4편의 공연이 있었으며, 주제발표와 환영행사는 대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집중도 있게 진행 됨

【좋았던 점】

- 아키타현의장 접견과 주제발표, 환영리셉션 등 모든 일정의 시작과 끝은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으며
-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주제발표와 20시 30분에 끝난 환영리셉션까지 주최 측 의원 모두가 자리를 함께하고, 만찬 종료 후에는 만찬장 출입구에서 환영 인사를 해 줌으로서 참가국 대표단이 매우 만족해 함
- 또한 영접과 안내 등을 담당한 의원들은 각국 대표단이 머무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영접과 환송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

【아쉬웠던 점】

- 인삼엑스포 등 우리도의 행사 홍보 시 관련 기념품 등을 제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의원 국외여비 형편상 타 국가 지방의회에 비해 참가인원이 2명으로 적은 편이었음

Ⅲ 주요 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4.17(월)	○ 출국 : 인천(10:40) → 나고야공항→아키타시(16:05) ○ 환영 이벤트 및 만찬(17:30)	KE741
2일차 4.18(화)	○ 아키타현 의회대표단과 인사 및 간담회(09:05) ○ 주변지역 시찰(09:20) - 현립미술관, 민속예능전승관 ○ 포럼참석(13:30~17:50) - 각 지방의회 의장발언, 양해각서, 차기 개최지 소개 등 ○ 환영 리셉션(18:30)	아키타현
3일차 4.19(수)	○ 이동 : 아키타현(9:45) → 오사카(11:05) ○ 백제문화유적지 탐방(동대사)	교토,오사카
4일차 4.20(목)	○ 백제문화유적지 탐방(광릉사) ○ 이동 : 오사카(18:15) → 인천공항(20:05)	교토, 오사카 인천공항

Ⅳ 공식접견 내용

【아키타현 의회 시부야 마사토시 의장】

- 작년에 충남도의회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가했을 때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이번 아키타현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 아키타현은 3미의 고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미주는 품미 좋은 술을, 미식은 질 좋은 쌀로 지은 밥을 의미하며, 미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인이 많다는 의미임
- 그리고 아키타견이 유명한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키타견을 갖고 싶다며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물물교환을 제안하고, 바뀌간 일화가 있음
-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며 방문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윤석우 의장】

- 지난해 4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포럼행사를 주관하고, 1년 만에 아키타현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며,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올해 9.22. ~ 10.23.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2017금산세계 인삼엑스포”에 방문하셔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충남의 인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 세계인삼도시연맹에도 가입하셔서 국내외 인삼도시 정보교환 등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 하셨으면 함

V 각 지방의회 주제발표

【충청남도 의회 의장 윤석우】

- 문화관광분야에서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 정부차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민간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
-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서울과 지방이 서로가 연계하여 발전하는 관광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충남만의 특색 있는 축제 및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있음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계기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9.22.~10.23.까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가 열림, 충남의 인삼에 대해 큰 관심을 보내주시고, 직접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세계 인삼산업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설립하는 ‘세계인삼도시 연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

【 강원도 의회 의장 김동일】

-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왔던 동북 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는 세계화 속에서 아시아적 가치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적, 문화적 연대성을 구축하고자 추진
- 동북아시아는 앞으로 문화, 관광의 측면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 강원도의 경우, 문화·관광·경제 분야에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하나 된 열정” 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를 단일한 관광권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것 또한 검토되어야 함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주임위원 쑤정】

- 중국 정부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동북 아시아 지역 관광업의 교류 협력을 중요시 여김
- 지린성에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매우 진귀한 생태환경이 있음
- 동북아시아 각국 지방의회와 서로 협력하여 선린우호를 깊게 다지고 다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지역관광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림
 - ① 동북아시아 각국 발전전략의 일체화
 - ② 지역관광 협력 추진 체제의 충실화
 - ③ 관광 교통망 건설의 공동 추진
 - ④ 관광과 기타 산업과의 융합 발전의 추진
- 세계는 이미 ‘관광 시대’에 돌입하고 있음, 저희들은 동북 아시아 지역의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이 기회를 살려, 교류 왕래의 강화, 관광 경제의 반영,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의 증진에 함께 노력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관광의 공동발전에 유익한 국면을 형성하고 싶음

【하바로프스크시 의회 부의장 A.A.가브릴로바】

- 하바로프스크시는 순조롭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사회 및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 전체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환경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면서,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하바로프스크시가 동북 아시아의 자매도시들간에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협력활동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인도적 협력 관계와 관광 교류가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무역·경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할 것임
- 하바로프스크 시의회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북 아시아 지역 도시들과의 인도적 협력, 관광 협력 및 무역·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니가타시 의회 의장 다카하시 미쓰요시】

- 니가타시는 혼슈 일본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해 거점의 활력을 세계로 이어주는 창조 교류 도시’로서 세계를 향해 열린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니가타시는 한국 청주시, 중국 칭다오시와 함께 2014년부터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의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독자적인 문화 전파에 관련 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음
-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중무선 LAN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내 민간시설과 점포의 간판 등에 각국의 언어를 표기하고 있음
- 2018년 2월에는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2020년 여름에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 됨, 니카타시는 문화 창조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 관광의 진흥과 경제 활동의 추진을 연결시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교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니가타시 의회는 앞으로도 여러분과의 신뢰 관계를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함

【연해주 지방 입법의회 의장 A.I.로릭】

- 연해 지방의 주민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간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우호적이고 양호한 관계를 매우 높게 평가
- 연해 지방에서는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가 진행, 그중에서도 선행발전영역 (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가 연해주 지방에서 실현
- 자유항 지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8일간에 한하여 비자수속을 간소화하는 결정은 관광객 유입의 확대와 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임
- 연해지방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며, 유럽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곳임, 각기 다른 방향에 위치한 관광지들로 떠나는 출발지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
- 5월에 예정되어 있는 태평양 관광 포럼, 9월초 리스키섬에서 제3회 동방 경제 포럼이 개최될 예정, 방문해주시기 바람
- 투자·경제 협력 문제에 관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희망함

【토야마현 의회 의장 히에나에 세이키치】

- 토야마현은 인구가 약 106만명, 면적은 약 4,200km²로 일본에서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일본해측의 거의 중앙에 위치,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교류 촉진에 힘쓰고 있음
- 토야마현의 문화 시책으로 ‘아시아를 선도하는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창조와 발신’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10월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만클럽’ 에 가입이 승인되어 국제적으로 그 매력을 널리 인정받았음
- 2015년 3월에는 호쿠리쿠 신칸센이 개통되어 도쿄와 토야마 구간이 약 2시간으로 연결되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쉽게 토야마를 찾아주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
- 토야마현은 문화, 관광, 경제 등 일본해의 건너편에 있는 동북아시아 각국과의 교류에 힘쓰고 있음

【투브 주 의회 의장 TS.엔후बाट】

- 2016년에 몽골 국회 총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국회의회와 지방의회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임기중에 수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시작하였음
- 투브 주의 경제·사회분야에 밀접한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주민을 중심으로 한 에코투어리즘의 개발 및 종합관광 시설을 건설 할 예정
- 몽골정부가 일본의 유상자금 협력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신울란바토르 국제공항 건설 작업이 완료, 투브주는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기준에 달하는 호텔이나 관광시설 등이 입주하게 될 복합시설의 건설을 앞두고 있음
- 앞으로 관광 사업에 참가하는 몽골 기업이 유상자금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을 받아 가면서 관광 교류 시책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음

【블라디보스토크 시의회 의장 노비츠카야 에레나】

- 2007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그 사명이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협력의 거점이 되는 것임
- 2017년에는 극동 지방의 발전촉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방 경제 포럼이 3회째를 맞이함
- 제1회, 제2회의 동방경제포럼에서는 300건 이상의 합의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총액은 3조 6,000억루블(600억불)에 달했음
-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분야의 중요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태평양 자오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 국 영화데이가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새로운 인프라를 정비했기 때문에 국제 수준의 행사 개최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과 문화적인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해졌음
- 마지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는 국제 협력에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야마가타현 의회 의장 시다 히데노리】

- 야마가타현 소개
- 야마가타현은 다양하고 질 높은 먹거리의 수출과 관광객 유치를 일체화 하여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현민의 국제화 등 다양한 국제교류에 노력하고 있음
- 야마가타현과 헤이룽장성은 1993년에 우호 현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1년에 헤이룽장성의 도청 소재지인 하얼빈시에 사무소를 개설
- 서울에는 야마가타현의 관광이나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 직원과 관광·무역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음
- 하바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역 코디네이터를 배치
- 이번 겨울에는 야마가타현에서 유엔 세계관광기관의 국제회의가 개최 될 예정임, 도호쿠 지방의 겨울이 가진 매력을 전세계 분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 많은 외국인이 저희 현을 찾아오시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부주임 지카이치】

-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단결과 조화를 이룬, 번영과 풍요를 누리며, 아름답고 행복한’ 새로운 연변 지역이 동북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동북 아시아 지역의 협력단계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다음사항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
 - ① 개방협력 이념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공동으로 발전 프로세스를 추진 하는 것임
 - ②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교류분야를 확대해 가는 것임
 - ③ 교류 협력의 기반을 갖추고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것임
- 동북아시아 각국 지역의 상호 호혜와 상생의 경제 무역 협력, 문화교류, 문화발신 및 우호적 교류 역시 일관된 포럼의 중요한 목표임

VI 주 요 성 과

- 동북아지방의장 포럼 행사를 거듭할수록 포럼참가 지방단체 의회 간 우호협력 강화 분위기 조성
- 포럼참가 지방단체 의회에 대한 이해 및 해당 지방단체의 문화, 관광, 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 동북아 지역의 문화, 관광, 경제교류가 실질적 교류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지방단체 의회 간 업무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합의
- 문화, 관광, 경제교류 확장하여 새로운 분야 발굴 및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8회 동북아의장포럼에서 상호 협의
- 올해 개최되는 2017금산세계 인삼엑스포 및 세계인삼도시연맹 가입 홍보

참고) 양해각서

제 8 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의 각서

2017 년 4 월 18 일, 일본 아키타현 의회, 일본 니가타시 의회, 일본 도야마현 의회, 일본 야마가타현 의회,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한국 충청남도 의회, 한국 강원도 의회, 몽골 투브주 의회,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의회, 러시아 연해지방 의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 의회는 일본 아키타현 아키타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관광·경제의 교류 확대를 목표로'를 테마로 포럼을 개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1 각 지방의회는 본 포럼의 취지를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및 우호 관계의 구축에 노력한다.

2 각 지방의회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깊게 다지고, 문화·관광·경제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교육·학술 등 교류 분야의 확대에 노력한다.


3 각 지방의회는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이벤트 등을 환영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특히 2018 년에 한국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2020 년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2022 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를 촉진한다.


4 제 9 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은 몽골 투브주에서 개최한다.


본 각서는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작성하고, 제 8 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참가한 5 개국 12 개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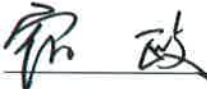
2017 년 4 월 18 일


 일본 아키타현 의회 의장 시부야 마사토시
SHIBUYA MASATOSHI, Chairperson of the Akita Prefectural Assemb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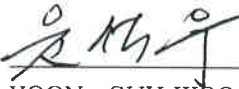
 일본 니가타시 의회 의장 다카하시 미쓰요시
TAKAHASHI MITSUYOSHI, Chairperson of the Niigata City Assembly


 일본 도야마현 의회 의장 히에나에 세이키치
HIENAE SEIKICHI, Chairperson of the Toyama Prefectural Assembly


 일본 야마가타현 의회 의장 시다 히데노리
SHIDA HIDENORI, Chairperson of the Yamagata Prefectural Assembly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쑤정
SU ZHENG, Member of the Jilin Provincial People's Congress Managing Committee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지 카이치
JI KAI QI, Vice Head of the Yanbian People's Congress Managing Committee


 한국 충청남도 의회 의장 윤석우
YOON SUK WOO, Chairperson of the Chungcheongnam-do Assembly

 한국 강원도 의회 의장 김동일
KIM DONGIL, Chairperson of the Gangwon-do Assembly

 몽골 투브 주의회 의장 체데브도르쥬 엔후बाट
ENKHBAT Tsedevdorj, Chairperson of the Tuv Provincial Assembly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의회 부의장 알렉산드라 가브릴로바
GAVRILOVA ALEKSANDRA, Vice-Chairperson of the Khabarovsk City Assembly

 러시아 연해 지방 의회 의장 로릭 알렉산드르
ROLIK ALEKSANDR, Chairperson of the Primorsky Krai Assembl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의회 의장 노비츠키야 에레나
NOVITCKAIA ELENA, Chairperson of the Vladivostok City Assembly

VII 주요 활동 사진



〈아키타현 의회대표단과 인사 및 간담회〉



〈아키타현 의회대표단과 인사 및 간담회〉



〈동북아의장포럼 주제발표〉



〈동북아의장포럼 주제발표〉



〈동북아의장포럼 참가국 대표들과 기념사진〉



〈아키타현 의원과 기념사진〉



〈동북아의장포럼 양해각서 서명〉



〈아키타 시내 전통가옥 시찰〉



〈동북아의장포럼 전통공연 관람〉



〈나라시 동대사 방문〉



〈나라시 광릉사 방문〉



〈나라시 광릉사 방문〉